佛教文化学会第23回学術大会
（第２回 大正大学－金剛大学校 国際学術研究発表会）
発表会テーマ『現代社会における仏教の諸問題』

仏教と自殺問題

―焼身自殺をどう見るべきか―

車　　相　燁
（金剛大学校仏教文化研究所 HK 教授）

現代社会において自殺問題が深刻になるにつれ、自殺に対する仏教の観点を明らかにする研究も増加している。一方、自殺の一つの形態で、最も激しい苦しみを伴う焼身自殺については、仏教的立場を考察したものは多くない。現代史の中で、佛教の僧侶たちによる焼身自殺が行われた事件は広く知られている。代表的な例は1960年代、ベトナムのティック・クアン・ドック（Thich Quang Duc）というお坊さんである。そして、最近ではチベットで百人余りの男女僧侶や仏教徒たちの焼身自殺が相次いで起きている。韓国でもまた数年前、ムンス（文殊）という一人の比丘僧が焼身自殺を行ったことがある。

彼ら僧侶達の焼身自殺に対する評価は概ね二つに分かれる。一方では、不殺生戒の仏教倫理に反すると批判し、他方では崇高な大乗の菩薩行である「焼身供養」であると褒め称える。だいたい犠牲的な死を選んだ彼らを仏教の戒律に反すると非難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ため、実際には批判より英雄的称嘆が多く見られる。

また、「焼身供養」という宗教的意義だけでこの死を評価するには、彼らの焼身自殺という行為の背景と動機は政治的な問題と深く関わっている。ベトナムでは、独裁政治、戦争、宗教差別弾圧の状況の下で僧侶の焼身自殺を選択されたし、チベットの僧侶たちもまた「中国統治反対！チベットの自由！ダライラマの帰還！」を叫びながら焼身自殺をした。韓国のムンス（文殊）お坊さんもまた、遺書によると、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の四大江（環境破壊）事業の中止、不正腐敗、経済的両極化問題の解決

を求めた。

このように現代史において僧侶の焼身自殺問題は、一般的な自殺問題とは異なる差別性を有する。しかしながら、この特殊な問題について、真摯且つ綿密な学問的考察はあまり為されていない。僧侶の焼身自殺を一般の自殺論の延長としてのみ扱ったり、政治・社会的な関係によりあまりにも美化する評価だけが紹介されることなどが問題点として指摘できる。その結果、現代人たちは僧侶の焼身自殺に対して極めて曖昧な態度を取っていると言える。

これまで為された仏教と焼身自殺に対する評価について、次のような質問が提起される。まず、仏教は自殺批判主義者達のように、どのような条件においても絶対的に命を優先する思想と言えるだろうか、或いは焼身供養の称嘆者達の主張のように、僧侶の焼身自殺がすべて大乗仏教の菩薩道の究極と評価されても良いのだろうか。このような両極端の見解に対する中道的な解釈が求められる時代である。

ところが、一方、本研究では基本的な立場や概念的分析の代わりに、新しい問題提起をしたい。すなわち、「何故、彼ら僧侶達は、よりによって「焼身」を選んだのか」ということである。他のやり方による死も自殺問題においては同じことが適用され得るが、その中でもとりわけ「焼身」が選ばれた背景を究明することによって、焼身自殺と仏教問題の解決のための一つの糸口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

一次的に、焼身供養が言及された仏教テキストを検討してみた。まず最初に『ジャータカ』には飢えた虎を助けるために自ら火に焼かれ、肉を供養した兎の話が紹介されている。仏陀の前世物語も少なからず影響を与えたと推定されるが、より直接的な教説は大乗経典類において見出すことができる。代表的な経典は有名な『妙法蓮華経』である。「薬草喩品」には、身と腕、指などを燃やすことが仏様に捧げる最高の供養と説明されており、「薬王菩薩本事品」の喜見菩薩は焼身供養を実践する姿を示している。

次は『梵網経』である。406年鳩摩羅什と一群の門下生達が『梵網経』を翻訳した直後に、その経典に基づいて菩薩戒を大々的に受けたが、この経には「諸仏に身・腕・指を燃やさないなら、出家の菩薩ではない」と言う程に、菩薩の徳目として規定されるに至る。『梵網経』は東アジアの大乗仏教圏における菩薩戒の受戒の際に、その思想が儀礼として再現される

点から、その影響力の極めて大きいことがわかる。韓国仏教の場合、受戒式において焼身を象徴する「燃臂」が必ず行われる。勿論、腕を燃やすのではなく、香火で腕の皮膚を少し焼くことに取って代わっているが、その思想は『梵網経』に基づいていることがわかる。

最後に『大般涅槃経』もまた焼身の功徳を説くが、「現世の肉身で灯蓋と芯を作って火を灯す焼身が無上の真理を得る近道」であると強調している。

ところが、ここで興味深いことは、焼身供養を説く上記の三つの経典がすべて鳩摩羅什と関連する点である。『妙法蓮華経』と『梵網経』は鳩摩羅什が直接翻訳した経典であり、最後の『涅槃経』は慧厳が翻訳した『南本涅槃経』であるが、彼もまた鳩摩羅什門下の弟子であった。身を捨てて他の命を救ったり、法を説く教説は多くの経典に登場するモチーフであるが、とりわけ身を燃やす焼身供養が強調されているこの経典類は鳩摩羅什と何らかの関連があると推定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二番目の分析は、歴史的に焼身供養の事例とそれに対する評価の内容を検討してみた。焼身供養の事例を紹介する文献は、中国の場合、『弘賛法華伝』『景徳伝灯録』、それから『高僧伝』と『続高僧伝』などである。特に、『高僧伝』と『続高僧伝』はそれぞれ「亡身」と「遺身」という項目を設けるほど、多くの焼身供養者を記録している。

まず『高僧伝』を編集した慧皎の場合は、焼身供養が不殺生戒に低触すると看做したが、焼身供養の正当性を確保するために、二つの条件を提示したことが注目される。まず、焼身供養の実践者の資質としては「階位の高い権現菩薩で、四忍を證得して毀犯禁戒の罪を超越した菩薩」を提示し、行為そのものの条件としては「衆生のために、適切な時期に行うことによって、あらゆる方面において多くの利益を実現すること」を提示した。

次に、『続高僧伝』の道宣は焼身供養を一般化することに反対した。個別的な事例の中には世俗的な利益と名誉を獲得するために焼身供養を行ったケースがあったからである。道宣は不純な動機から焼身した場合は戒律違反であるとしたが、焼身供養そのものをひっくるめて戒律違反と看做す見解には反対した。菩薩行としての焼身供養の価値を否定して、不殺生戒の戒律問題に限定してこれを解釈しようとする態度を避けようとしたので

ある。

焼身供養に対する最も強力な批判は少し後代に義浄の『南海寄帰内法伝』に見られる。義浄はインド留学僧として、焼身供養の問題点を仏教の原則―出家者の律蔵遵守の規則―に基づいて批判し、また焼身不合と傍人獲罪とに分けてこの問題を綿密に分析した。しかしながら、彼もやはり徳の高い菩薩による衆生救済の利他行としての焼身供養は例外として配置した。

焼身供養を説く大乗経典類とそれに対する評価の歴史を総合すると、現代の大乗仏教圏の僧侶たちにとっては、二つの重要な情報が同時に働いていることがわかる。一つは不殺生の戒律であり、また一つは求道と利他の焼身供養である。さらにあわせて焼身供養が不殺生と結び付けられて厳しく批判されたことはあっても、菩薩行としてそれ自体が否定されたことは一度もなかったことがわかる。

では、現代史において登場した、或いは相次いで起きる僧侶と仏教徒達の焼身自殺をどう見るべきであるか。焼身自殺そのものが不殺生に反するから無条件に否定するのではなく、『続高僧伝』の道宣の指摘のように、個別的な事例別にこの問題を判断すべきであることがわかる。そして、『高僧伝』の慧皎の説明によって、実践者が咎無しで焼身できるような修行の境地にいるか、或いは純粋な動機からであるかの可否を検討すべきであり、それから、その行為によって多くの人々に利益がもたらされたかを問う必要があろう。

最後に焼身供養が東アジア仏教の僧侶達にとって求道的志向の原形として機能していること、そのものが検討される必要があると思う。特に、現代社会において行われた僧侶達による焼身自殺が政治的には肯定的な面がなかったとは言えないが、その行為の結果として必ず連続する焼身を誘発したことを考えるとなおさらである。

불교와 자살문제

-분신자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차상엽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 professor)

현대 사회에서 자살문제가 심각해져 감에 따라 자살에 관한 불교의 관점을 조명하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자살의 한 형태이면서 가장 극한 고통의 죽음인 분신자살에 대해서는 불교적 입장을 고찰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현대사 속에서 불교 승려들에 의해 분신자살이 행해진 사건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60년대 베트남의 틱광득 (Thich Quang Duc) 스님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티벳에서 백 여명의 남녀 승려와 불자들의 분신자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또한 몇 년전 문수 (文殊) 스님이라고 하는 한 비구승이 분신자살한 적이 있었다.

이들 승려의 분신자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양분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불살생계의 불교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숭고한 대승 보살행인 '소신공양 (燒身供養)'이라고 찬탄하기도 한다. 대체로 희생적인 죽음을 선택한 이들에게 불교 계율에 맞지 않다고 비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비판보다는 영웅적 찬탄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의로만 이 죽음을 평가하기에는 이들의 분신자살 행위의 배경과 동기는 정치적인 문제와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다. 베트남에서는 독재정치, 전쟁, 종교차별탄압의 상황에서 승려의 분신자살이 선택되었고, 티벳승려들 또한 "중국통치 반대! 티베트 자유! 달라이라마 귀환!"을 외치며 분신자살하였다. 한국의 문수스님 역시 유서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환경파괴) 사업 중지, 부정부패, 경제적 양극화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현대사에서 승려의 분신자살문제는 일반 자살문제와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이 특수한 문제에 관한 진지하고 세밀한 학문적 성찰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승려 분신자살을 일반 자살론의 연장으로만 다루거나, 정치 사회적인 관계로 인하여 지나치게 미화하는 평가만 소개되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승려의 분신자살에 대해 매우 모호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진행된 불교와 분신자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우선 불교는 자살 비판주의자들처럼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적으로 생명을 우선시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혹은 소신공양 찬탄자들 주장과 같이, 승려의 분신자살이 모두 대승불교 보살도의 극으로 평가되어도 좋은가. 이와 같은 양극의 견해에 대한 중도적 해석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한편, 본 연구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이나 개념적 분석 대신 새로운 문제제기를 던지고자한다. 즉, “왜 이들 승려들은 하필이면 ‘분신’을 선택하였는가”하는 점이다. 다른 방식의 죽음도 자살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분신’이 선택된 배경을 조명함으로써, 분신자살과 불교문제 해결의 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차적으로 소신공양이 언급된 불교 텍스트를 검토하였다. 제일 먼저 『자타카』에는 굶주린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불에 타서 고기를 공양한 토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붓다의 전생 일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직접적인 교설은 대승 경전류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전은 유명한 『묘법연화경』이다. 「약초유품」에서는 몸과 팔, 손가락 등을 태우는 것이 부처님께 바치는 최고의 공양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약왕보살본사품」의 희견(喜見) 보살은 소신공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梵網經』이다. 406년 구마라집과 일군의

문하생들이『범망경』을 번역한 직후에 이 경에 근거하여 보살계를 대대적으로 수계받았는데, 이 경에는 “諸佛께 몸, 팔, 손가락을 불태우지 않으면 출가한 보살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보살의 덕목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른다. 『범망경』은 동아시아 대승불교권의 보살계 수계 때에 그 사상이 의례적으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 불교의 경우, 수계식에서 소신 (燒身) 을 상징하여 ‘연비 (燃臂) ’를 반드시 행한다. 물론 팔을 태우는 것은 아니고, 향불로 팔의 살갗을 살짝 태우는 것으로 대신하지만, 그 사상은『범망경』 교설에 근거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반열반경』역시 소신의 공덕을 말하는데, “현세의 육신으로 등잔과 심지를 만들어 불을 밝히는 소신이 무상의 진리를 얻는 첩경”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소신공양을 설하는 이 세 경전이 모두 구마라집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묘법연화경』과『범망경』은 구마라집이 직접 번역한 경전이며, 마지막『열반경』은 혜엄이 번역한『남본열반경』인데, 그 역시 구마라집의 문하 제자였던 것이다. 몸을 버리고 남의 생명을 구하거나 법을 구하는 교설은 많은 경전에서도 등장하는 모티브이지만, 유독 몸을 태우는 소신공양이 강조된 이 경전류들이 구마라집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분석한 것은 역사적으로 소신공양의 사례와 이에 대한 평가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소신공양의 사례를 소개한 문헌은 중국의 경우, 『홍찬법화전』, 『경덕전등록』그리고 『고승전』과 『속고승전』등이다. 특히, 『고승전』과『속고승전』은 각각 「망신」과 「유신」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설정해 둘 정도로 많은 소신공양자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고승전』을 편찬한 혜교 (慧皎) 의 경우는, 소신공양이 불살생계에 저촉된다고 보았지만, 소신공양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먼저, 소신공양 실천자의 자질로는 “계위가 높은 권현 (權現) 보살, 사인 (四忍) 을 증득해서 훼범금계 (毁犯禁戒)의 죄를 뛰어 넘는 보살”을 제시하고 있고, 행위 자체의 조건을 드는데, “중생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행함으로써 모든 방면에서 많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속고승전』의 도선 (道宣)은 소신공양을 일반화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개별적인 사례별로 세속적인 이익과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 소신공양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선은 불순한 동기로 소신한 경우는 계율위반이라고 하였지만, 소신공양 자체를 통틀어 계율위반으로 보는 견해는 비판하였다. 보살행으로서의 소신공양의 가치를 부정하고, 불살생계 계율 문제에 한정하여 이것을 해석하는 태도를 피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소신공양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조금 후대, 의정 (義淨) 의『남해기귀내법전』에서 볼 수 있다. 의정은 인도 유학자로서 소신공양의 문제점을 불교의 원칙-출가자의 율장준수 규칙-에 근거하여 비판하였고, 또한 소신불합 (燒身不合)과 방인획죄 (傍人獲罪)로 나누어 이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하지만 그에게서도 역시 덕이 높은 보살의 중생구제 이타행으로서의 소신공양은 예외로 배치되었다.

소신공양을 설한 대승 경전류와 이에 대한 평가의 역사를 종합해 보면, 현대 대승불교권의 승려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불살생의 계율이고, 또 하나는 구도와 이타의 소신공양이다. 또한 아울러서 소신공양은 불살생과 결부되어 강하게 비판되었을 지언정, 한 번도 보살행으로서 그 자체의 가치가 부정된 적이 없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사에서 등장했던 혹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승려와 불자들의 분신자살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분신자살 자체가 불살생에 저촉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속고승전』의 도선의 지적과 같이 개별적인 사례별로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고승전』의 혜교의 설명에 의하여, 실천자가 허물없

이 분신할 수 있는 수행의 경지 혹은 순수한 동기인가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이익이 되었는가 묻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신공양이 동아시아 불교 승려들에게 구도적 지향의 원형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체가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행해진 승려의 분신자살들이 정치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나, 그 행위의 결과로서 반드시 연속적인 분신을 유발해 온 점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